

시선

사설

‘뉴노멀’ 요구되는 대학사회

코로나19가 대학사회를 다시 위협하고 있다. 이태원동 클럽에서 재 확산된 코로나19가 2차, 3차 감염까지 발생시키며 빠른 속도로 전파된 것이다. 서울캠퍼스가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와 국제캠퍼스가 있는 경기 용인시에 서도 이태원 전파 확진자가 나타났다. 지난 4월 28일 이후 다시 시작된 캠퍼스 주변 지역사회 감염이었다. 한때 지역사회 감염자 0명을 기록하며 확산세가 줄어드는 듯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지 불과 며칠 만에 나타난 결과다.

15일 정오 기준 이태원동 클럽 관련 확진자는 153명을 기록한 상태다. 그 중 19~29세 확진자는 93명으로 젊은 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이태원을 방문한 우리학교 재학생 1명 또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감염 후 학교에 방문하지 않아 다행히 피해가 대학으로 확산되진 않았다. 하지만 비대면 강의 기간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대학 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계속된 코로나19의 위협에 구성원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특히 젊은 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학사회 내에 더 많은 경각심을 일깨웠다. 등교해 수업을 듣거나 선배, 동기, 후배들과 모임을 갖고, 가끔은 변화가에 나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던 당연한 일상은 이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행동으로 바뀌었다. 이는 정상적인 대학교육과 자유로운 일상이 더 이상 양립하기 어려움을 드러냈다. 사회 전반에

서 고조되는 새로운 표준, ‘뉴노멀’에 대비하자는 목소리는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이전의 자유분방한 일상은 자체하고 거리두기를 생활화한 새로운 일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학 내 구성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된 건 그 정도를 완화했을 뿐 여전히 주의를 늦추지 않아야함을 뜻한다. 구성원들은 밀집 시설 이용 등을 자제하고 느슨해진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보수적으로 일상을 대해야 단 하나의 예외로 펴질 수 있는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는 감염 경로를 철저히 예방해도 불가피하게 코로나19에 전염될 수 있다는 건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감염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하나라도 더 줄이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할 때 코로나19는 하루라도 빨리 종식될 수 있다.

게임 이론의 사례 죄수의 딜레마는 두 용의자가 침묵하기로 한 협의를 깨뜨릴 때 더 많은 협상을 받게 된다는 이론이다. 협력적인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옴에도, 사익을 위해 행동할 때 더 나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대학사회도 이와 같은 딜레마에 적용될 수 있다. 일상을 되찾기 위한 일부의 선택은 대학 공동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게 된다. ‘나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은 코로나19를 언제든지 학내로 불러올 수 있다. 이젠 이전의 일상을 그리워하기보다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학사회 뉴노멀의 정착은 대학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다.

만평 - 모니터로 만나는 미래 교육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발행인 한준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김지원 | 제작/인쇄 중앙미디어자인(주)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n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n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화기동) | Tel 02-361-0093-5 |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현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정의라는 이름의 길

세시봉

김수혁 (기획팀장)



다시 5월 18일이다. 이날을 한국인들로 하여금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만든, 1980년 5월 18일로부터 마흔 번째다. 1980년의 그 날 이후 오랫동안 한국인들에게 5월 18일은 누군가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터부, 누군가에게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픔, 누군가에게는 떨쳐낼 수 없는 부채의식, 누군가에게는 잊어선 안 될 맹세였다.

지난 총선 기간, 광주에 출마한 모 후보의 발언이 논란을 낳았다. 그는 후보자 토론회 자리에서 “광주는 80년 대 유산에 사로잡힌 도시, 생산 대신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 과거 비극의 기념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출산을 가로막는 도시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맹자』의 첫머리에는 이런 일화가 등장한다. 양혜왕이 맹자를 초빙해 나라를 이롭게 할 길을 묻자 맹자는 “왕께서는 하필 이로움(利)을 말씀하십니까? 다만 어짊(仁)과 의로움(義)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답한다. 왕이 어떻게 하면 이의를 취할 수 있을지를 처음 문자 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도덕과 명분을 먼저 바로 세우라고 일갈한 것이다. 무엇이 이로움이고 무엇이 의로

움인지, 그 둘 사이에 관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이다. 다만 새겨볼 점은 언제나 이로움보다 의로움만을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의로움을 논해야 할 때 손익을 앞세워 따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닐까. 또한 재부를 위해서는 정의와 윤리도 우스운 농담거리가 될 수 있는 사회라면 필시 진정으로 이로운 변화 또한 꾀할 수 없을 것이다.

광주를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라고 말한 모 후보의 발언은 말의 품위 없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말의 바탕이 되는 역사와 정의에 대한 인식의 얕팍함이다. 그런 얕팍함이 만연할수록 맹목적인 편협과 공허한 정신의 지배라는 병에 대한 우리 사회의 면역력은 약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월 18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명의 사람이 살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들에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국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국격의 고귀함과 비루함은 한 나라가 지나온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달려있을 것이다. 달력을 펼쳐보면 등장하는 많은 기념일들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달력은 그 날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까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기억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흐릿해지고 결국에는 한줌 먼지처럼 흩어질 것이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군대를 앞세워 권력을 찬탈하고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짓밟으려 하는 전두환과 신군부에 대항해 일어섰다. 5월 26일, 전남도청을 지키던 시민군은 곧 계엄군이 들이닥치리라는 예상에 귀가 권고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다음날 새벽 4시 계엄군의 공격이 시작됐을 때 도청에는 여전히 시민들이 남아있었다. 남아있던 이들은, 이길 수는 없을 테지만 전두환과 신군부에게 빙 도청을 내줄 수 없어 떠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국군의 총과 군홧발에 다치고 죽었다.

맹자는 “어짊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로움은 사람의 길이다(仁人心也 義人路也)”라고 말한다. 어짊이 착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의로움은 모질고 악랄한 말과 행동을 마땅히 미워하고 분노할 줄 아는 것이다. 야만과 폭력이 원칙과 윤리를 벗어나 이웃을 짓밟고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항의하는 용기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우리에게 바로 이 정의라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앞서서 나간 이들을 위해, 산자들은 마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변화는 늘 두렵지만

최재수첩

김가연 기자

rkodus0617@knu.ac.kr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벚꽃이 자취를 감춘 5월, 우리는 아직도 전자기기 속 작은 화면으로 강의를 듣고 있다. 한두 주 개강 연기로 해결될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우리의 일상에 가지를 뻗고 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이번 사태를 시작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온라인 강의로의 교육 패러다임 대변환이다.

몇 년 전부터 21세기를 이야기할 때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빠지지 않는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개발되며 우리 생활에 거대한 변화가 생길 것이므로 이에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체감하고 있다. 휴대폰에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가 탑재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자제품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똑똑한 머리는 물론, 창의성, 협동력, 비판적

사고력, 거기에 인간 관리 능력까지 갖췄기를 바란다. 더욱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평생직장을 갖기 힘든 요즘, 사람들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계발을 한다.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 교육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이에 발맞춰 대학 교육도 변화를 모색했다. 대학은 평생 교육의 선제 조건인 시공간 제약 극복을 위해 온라인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전 세계 대학교는 물론 초·중·고등학교도 등교를 미루고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다. 본의 아니게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테스트 기반이 생겼다.

급하게 시작된 온라인 강의에는 허점이 많았다. 교수님도 학생도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았고 인프라 부족과 기술적 한계도 있었다. 그럼에도 교육 전문가들은 온라인 교육의 긍정성을 논했다. “평생교육과 다양성 존중이 중요해진 사회에서 온라인 교육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강의의 비용 절감 효과와 시공간 제약 극복도 주목받았다.

나 또한 오프라인 교육 중심 사회에서 자랐기에, 온라인 교육을 예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와 달지 않았다. 온라인 교육은 어딘가 부족하고 대안적

인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기술 발달은 온라인 교육의 발전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확장했다. 이제 온라인 강의는 단순히 인터넷을 이용한 강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가상현실 혼합 기술을 통해 강의의 생생함을 살리고, 학습 분석 기술과 개인 맞춤형 컨설팅을 이용해 자신에게 최적화된 학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때 수업에 대한 준비정도가 높아지고 학생들의 집중력이 더욱 향상되는 경우도 있다”는 교수님의 인터뷰 답변도 놀라웠다. 기술은 점점 정교해질 것이고 교육 모델도 발전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에 대해 가졌던 반감이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화는 늘 두렵다. 이미 정립된 교육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도 복잡하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변화가 없으면 발전도 없다. 새로운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기술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했다. 교육도 변화의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지금의 과도기를 잘 넘겨 온·오프라인이 적절히 융합된 활기찬 교육의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